朝鮮日報 朝刊
本紙特刊並十二面

社說

在東京朝鮮基督教青年會의 新事業

社會의 後援을 要望

一

東京에잇는 朝鮮人基督教靑年會에서는 東京에잇는 朝鮮人의 勞學、修養、教化、少年、婦人、施療의 六事業을 實行코저 經綸中이라는바 이미 後援會까지 組織되어 着着 事業이 進行中이라 한다。

在東京朝鮮人基督教靑年會가 過去 二十七年間 東京에잇어서 朝鮮人留學生、勞働者、其他 往來 居住하는 朝鮮人에게 直接、間接으로 만흔 便宜와 指導를 준 功績에 잇어서는 다시 贅言을 不要하거니와 今次 다시 同會가 前記 六事業을 開始함에 잇어서는 滿腔의 感謝를 表하지안을수업다。

二

누구나 海外에 나아가 同胞를 그리는 마음이 업을수는 업을것이다。特히 該地方事情에 通曉치 못한 初行人의 海外에 가을때의 不便、孤獨한 心情은 누구나 一次 海外를 旅行해본 사람의 한가지로 經驗한바일것이다。

그런데 朝鮮人은 文化上、經濟上 가장 日本과 關聯이 깁허서 일즉부터 日本에 來往이 만엇다。아마 將次라도 이 關係은、커지면 커질지언정 적어질 理는 萬無하다。

現在日本에는 東京에四萬의 在留者가 잇고 大阪、京都、其他를 合하야 無慮 四十萬의 朝鮮人이 在留한다。이 數만은 朝鮮人을 위하야 勞學、修養、敎化、少年、婦人、施療의 諸事業을 하야 在日朝鮮人으로 하야금 便宜、稗益을 사치에 對해서는 거듭 贊意를 表하지 안을수업다。

三

在東京朝鮮人 基督敎靑年會館은 年前 關東 大震災때에 燒却되어 數年間 莫大한 不便을 感하든바、在來미순會의 補助와 在內同胞의 援助에 依하야 現在와가튼 新建築을 建造한 經驗이 잇잇다 이것은 오르지 在內同胞가 同會의한 듯이 東京에 잇어야할것을 切感한 때문이다。

萬一 在內同胞가 今後 同會로서 在日 四十萬同胞를 爲하야 如上의 事業이 必要하다 認定할것가트면 一齊히 援助를 액길수 업을것이다

이미 後援會가 組織되어 積極的으로 同靑年會의 事業을 援助 하기로되엇다 하니 有終의 美를 收할줄로 밋거니와 同胞 各自도 各己子女와 各己 親族과 各其鄕人과 各其 同胞를 위하야 精神的 物質的 援助를 액기지 말어야 할것이다。

四

海內에잇서 海外同胞를 잇기는 쉬다。그러나 海外同胞로서 海內同胞를 생각함은 切實하다。萬一 海內 同胞가 海外 同胞를 爲하야 一些의 贊助라도 잇다면 海外 同胞는 눈물로서 이것을 歡迎할것이다

同胞諸彦은 各自가 一次海外에 在留하는것으로 假想하고 各自應分의 援助하기를 希望한다

新政府와 結托確固 共産軍延平着說

府內에는 財政難深刻、內紛激化 興味잇는 福建의 將來

【上海通信】 福州政府成立以來南京政府는 經濟封鎖政策을 써오고 新政府의 擴大强化를 强制하야 왓는데 最近情報에 依하면 新政府는 成立한지 一個月도 못되어 벌서 財政上의 破綻을 보히려한다。그뿐아니라 第十九路軍成立當時 一人에게 一元을 支給하얏슬뿐으로 俸給六個月間의 不拂이 잇다하야 漸次軍內에 不平이 起하야 이 때문에 司令部의 命令에도 服從치안는 狀態라고 傳한다 南京政府의 經濟的 封鎖政策으로부터 影響을 受하야 商業은 停頓하고 米價는 昂騰할뿐으로 매우 困窮한 狀態에 陷하엿다 이리하야 陳銘樞一派와 文治派와의 確執도 相當히 激烈을 加하야 現在 陳派의 二個袖는 辭職하얏다고 傳하며 新政府는 內部에서 崩壞할것이 아닌가하는 悲觀論을 가지는이도 나오게되엇다 一方 新政府가 否認을 聲明하데 不拘하고 聯共의 事實은 漸次顯著하게 되어 最近約一千의 共軍은 延平에 入하야 福建의 一部地盤을 共軍에게 委托하고 第十九路軍은 浙江省境에 積極的 進出을 하려하는 形勢를 示하고잇다고 傳한다 이것은 新政府와 共軍이 굿게 結托하얏다는 것을 傳하는 이도잇다

第三國際黨의 巨物 마프氏入閩豫期

共黨과의 妥協內容

【上海通信】 福建新政府가 聯共의 否認을 聲明하얏음에 不拘하고 共産黨의 連繫는 움직일수업는바가 잇다 蘇聯에서는 重要人物이 자주 福建에 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린다 第三인터내쇼날도 今回의 獨立運動을 重要視하야 前모스크바中山大學副校長이든 마프氏를 特派하야 支持하기로 되어 新政府도 이것을 容認하얏다는 情報도잇다 探聞한 바에 依하면 新政府와 共産黨과의 妥協條件은 如左하다

(一) 共同綱領下에 中央에反抗하야 國民黨의 解消를 圖할 (二) 均分用産을 實行할 (三) 農、工小資産階級의 聯盟政權을 建設할

그리고 그 履行條件으로서 (一) 먼저 新政府는 共産區封鎖를 停止할것 (二) 會匪간의 過大를 속이기 위하야 되도록 桃色을 表示하야 그 聯絡을 緊密히할것

(三) 共軍은 十九路軍을 위하야 福建北部를 擁護하야서 中央軍에 抵抗케할 (四) 陳濟棠 蔡廷楷氏는 福建西部를 放棄하고 共軍 羅炳輝로 하야금 廣東軍에 對한 牽制를 할 四十九師는 漳州 廈門에 移動케하고 漳州、泉州의 毛澤東部隊는 更駐케하야서 福建北部를 지키고 漸次進攻에 便케할

追加豫算問題는 藏農省折衝에 移牒

內政會議于先一旦終了

【聯合東京電話】 在內報終의 第八次內政會議는 二十二日午後一時半부터 首相官邸에 開會하고 齋藤首相以下 山本內相 高橋藏相 荒木陸相 後藤農相 中島商相 三土鐵相 永井拓相等 關係閣僚가 出席하야 먼저 堀切書記官長으로부터 農村豫算經減에 關한 調査機關의 構成에 對하야 提案하야 諒解를 求하고 이에 成立을 보앗다 繼續하야 審議未了의 農地保全及 安定問題審議에 入하야 農林、商工兩省에서 硏究를한 重要肥料統制案의 探擇을 決定하고 이 부外 後藤農相의 提案인 各項目에 關한 一應의 討議를 終하얏는데 마츰나 八回에 亘한 內政會議의 實質的 懸案인 後藤農相의 追加豫算要求는 强硬히 그 承認을 求할터이바 高橋藏相이 從來의 農村對策에 對하야 充分히 滿足한 意를 表하얏스나 豫算에 對하야는 異論이 잇다 又齋藤首相은 農相의 面目問題로부터 다시 農相의 立場을 積極的으로 支持하야 豫算에 對하야는 內政會議와 分離하야 別個로 折衝할 方針을가진 關係上 今日의 會議에서 具體的 協議만 入하기는 困難한 模樣으로 結局 原案에 關한 希望하는 所管에 關하야 內政會議는 今日로써 맛내고 追加豫算은 大藏農林 事務當局이 折衝에 移하고 繼續하야 首相、藏相、農相의 政治的努力이 될터이나 追加豫算은 …

【海外寫眞뉴-스】 英國 볼드윈(左)、맥도날드(中)、싸이먼(右) 三氏가 國民內閣의 … 서도 더메서즈 獨裁의 形式을 避하고 民主主義的 路線을 걸으려는것을 表示하는 것이다(上) 伯林街頭의 新名物나치스宣傳柱니 英國前首相로이드조지氏의 獨逸의 聯盟脫退는 國際的義務不履行이란 文句를 逆用하야 데모크라시를 攻擊한것이 注目된다(下)

日印會商內容을 公式文書로 作成

近近新條約大綱에 調印?

【電通東京電話】 日印會商은 爲替條項은 紳士協定의 方法에 依하야 大略妥協이되고 남는것은 兩綿布配定量의 問題만으로되엇슴으로 澤田代表는 二十日 보아代表와 私的會見을 하고 「日印會商은 이미 大綱에 對하야는 協定에 到達하야 兩綿布配定量과 技術的인 細目問題를 남길뿐으로되엇슴으로 細目的 協定은 來春에 移하고 今日까지에 到達한 協定內容을 公式文書作成하야 如何」냐 提議한바 보아長官도 贊意를表한다고 二十二日 澤田代表로부터 外務省에 公電이 잇섯다 그리하야 外務省은 곳 九月二十六日의 第一回會商以來今日까지 到達한 協定項目에 對하야 調査하고 日印兩國의 交換公文書 草案을 起草하야 電送하기로되엿는바 印度側과의 間에 右草案에 對하야 意見이 一致하면 當初의 豫定대로 크리스마스休暇前에 新條約大綱의 調印及 覺書의 交換을 볼터이다

大藏省의 態度에 總督府는 大憤慨

新規事業은 全滅狀態

未曾有의 辛辣한 査定을 밧는 明年度豫算案은 廿六日의 閣議에서 最後決定을 볼 模樣인바 大藏省의 第二回査定의 結果는 項目만은 全部 認定하얏스나 金額에 잇서서는 거의 削減을 受치안흔것이 업서 削減總額 一千七、八百萬圓에 達한 模樣이다 이 때문에 明年度新規事業은 全滅狀態로 總督府에서 大憤慨하는바 明年度以降 三個年繼續事業으로서 要求中인 第二次窮民救濟事業은 一個年完了事業으로서 總額千六百萬圓(土木一千三百五十萬圓 砂防二百五十萬圓)을 認하얏슴 土木費九百五十萬圓은 百五十萬圓으로 削減되고 砂防事業費百二十五萬圓은 四十五萬圓의 旣定繼續費만 承認되어 新規要求의 八十萬圓은 完全히 削除되엇다 其他 増産獎勵計劃擴大案도 有耶無耶이되어 今年度와 同額을 承認하얏스므로 綿羊、輕金屬、資源調査、産金獎勵 北朝鮮開拓等 모다 大削減을 受하얏다

【電通東京電話】 明年度各特別會計豫算은 議會目前에두고 大藏省에서는 二十六日의 閣議에 提出하려고 極力으로 査定을 急히하고 잇는바 二十一日의 豫算省議에서는 거우 朝鮮、臺灣의 合計分을 맛내엿슬뿐으로 남어지는 거의 主計局에 一任한 形勢로되여잇다 그리고 特別會計에 對한 大藏省의 査定方針은 一般會計의 例에 依하야

一、新規事業計劃은 멀리부터 削除할것

一、補充金公債는 前年度부터 이것을 削減할것

等의 緊縮方針을 取하고 各植民地로부터 新規要求는 徹底的으로 削除되엇다 其結果特別會計의 公債總額은 豫想外에 縮少되야 一億圓以下에 억친 模樣이다 그리고 一般會計의 七億八千五百萬圓을 合하야 明年度公債發行豫定額은 八億八千五百萬圓程度가될 模樣이다

樞密院委員會

外省調事部設置 官制改正案承認

【電通東京電話】 外務省調査部設置에 伴한 官制改正案外一件에 對하야 樞密院審查委員會는 二十二日午前十時부터 開會 平沼副議長以下各委員 出席 原案에 對하야 檢討한 結果 帝國은 一九三五、六年의 國際重大危機를 앞두고 確乎不動의 國策에 基하야 外交方針의 確立에 依하야 所期의 目的貫徹에 邁進치안으면 안된다 이때문에 現行外務省의 機構에는 外交資料의 調査等의 不自由를 感하는 點이 잇슴으로 調查部의 設置는 가장 時宜를 得한것으로 思惟하나 政府는 國際外交의 實情에 鑑하야 國策의 遂行에 遺憾업도록 期하기를 바란다 라는 意味의 勸告的 希望意見을 決議案에 挿入하야 滿場一致로 原案을 可決하고 正午에 散會하엿다

福建革命政府와 海軍側妥協條件

【聯合福州二十一日發】 前日成立한 人民革命政府와 海軍側과의 妥協條約은 如左한것으로 判明되엇다

一、革命政府는 馬尾 廈門의 各砲臺를 海軍側에 引渡할것

二、此에 對하야 海軍側은 革命軍이 浙江에 軍事行動을 惹起하는 境遇 海軍의 防禦地點인 福寧의 通過를 承認할것

根本方針에 一致

構成議題、開催地等 日蘭官民合同協議會

【電通東京電話】 日蘭會商에 關한 第一回官民合同協議會는 二十二日 午前十一時半부터 外務省通商局長室에서 開催하고 外務省側 來栖通商局長、若松商務官、商工省側吉野次官、黑田貿易課長、民間側宮島日清紡社長、豐村富士紡專務、庄司東洋紡社長、阿部同紡專務의 八氏가 出席하야 最者 遠藤當業者代表가 剔그에外 和蘭側當業者와 提案된 日蘭會議의 構成範圍 開催地等을 附議하야 意見을 交換한結果

一、構成 當業者間의 協議를 先決로하므로 民間代表만을 派遣하야 會議의 趨移에 依하야 適當한 時機를 보아 兩國政府間에 交涉을 移할 用意가 잇는것

一、議題 綿布及 綿布材料에 關한 問題라하나 後者에 關하는 것은 우리들 當面의 議題로 할것

一、開催地 和蘭의 提案과 가치 자바로할것

一、時期 可及的速히開催할것

等의 根本方針에 對하야 意見의 一致를 보고 午後零時半 散會하얏다 그리고 和蘭側의 提案은 正式手續을 取치안코 單純히 和蘭側의 意向을 傳한것인바 日本側으로서 今日의 協議會의 經過를 目下 現地에잇는 當業者代表에게 通達하는 同時에 和蘭政府에 對하야서도 이것을 傳達하기로되엇다

官民合同協議

日本의 態度決定

【聯合東京電話】 日蘭通商協議會에 對한 日本側의 態度를 決定하기 爲하야 二十二日午前十一時半 外務省通商局에서 官民合同協議會를 開催하고 當業者側 庄司 阿部 宮島 鹿島 諸氏 出席 外務省에 通告된 日蘭 和蘭側의 案을 中心으로 當業者의 對策을 提示하고 兩者隔意업는 意見의 交換을 行한 結果 如左히 決定하엿다

一、和蘭側이 日蘭兩國政府의 交涉을 希望할 境遇에는 日本側은 當業者와 政府와 倂合的으로 會商을 希望할것

一、主要協定品目에 對하야는 和蘭側이 雜貨도 包含식히고저 申請한바 當方은 綿絲布에 限定할것을 希望할것

一、「協定基本數量은 一九三三年의 輸出數量으로할것

一、…

閣議決定事項

【電通東京電話】 二十二日의 閣議에서 決定한 것은 左와 如하다

一、人事

任 外務參與官(二等) 從五位 松本忠雄

一、朝鮮民事令中改正의 件

一事一言

長白山人

救世軍의 慈善鍋라는 것이 街頭에 걸니고 거기는 五錢、十錢자리 白銅錢、一錢자리 銅錢이 허굿、 뭇읏 누어잇고 그 그릇은 쇠쇠에 쓰는 鐵鋼으로 되엇다。이것은 銀行의 出納에 잇는 鐵鋼과 가티 一 … 그 남비를 달아노흔 사람에는 「이 솟을 살케하여주시오」하는 말이 씨어잇다。그러나 그 솟은 多…

民政黨院內役員決定

【聯合東京電話】 二十二日의 議員總會에서 民政黨院內役員은 如左히 決定하얏다 (이로하順)

院內總務 吉川吉郞兵衛 賴母木桂吉 島田俊太郎 小島七郞 內ケ崎作三郎 工藤鐵男 主任 小山松壽 木檜三四郎 作田高太郎

그리고 本部總務는 幹事長과 同樣으로 取扱함

議員總會長 横山金太郎

同副會長 手代木隆吉 桝谷寅吉

夕刊後의 市況

朝取短期 (後引 高値 低値) 朝取 鐘新 大新 東新 日産 同新 拓新 [illegible]

東京短期 (後引 高値 低値) 東新 [illegible]

大阪短期 (後引 高値 低値) 大新 鐘新 日産 東新 [illegible]

大阪長期 大株 鐘紡 大新 鐘新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大新 鐘新 日産 東新 [illegible]

橫濱生糸後引 [illegible]

人事·集會

▲邊永瑞氏(監理教會神學校長) 米本國에서 內鮮親睦을 當하야 歸國中이든바 不遠間 歸任한다고

▲辛泰嶽氏(辯護士) 三四日間 豫定으로 二十二日夜十時二十五分車로 平壤에 旅行

補血強壯 포리타민 ポリタミン

빗나는 健康으로

「포리타민」은 世界醫學界에서 滋養効果가 가장 優秀하다고 證明된 貴重한 榮養「아미노酸」을 主成分으로한 獨特한 補血強壯劑임으로 普通의 鐵劑나 蛋白質의 滋養劑와는 달라서 服用後 直時 體內에 吸收되야 피(血)로 되고 살(肉)로 되야 迅速히 衰弱한것을 恢復식히며 體內의 精力을 增强케한 貴重한 榮養劑이올시다

醫學博士 四四〇餘名의 權威잇는 推奬報告가 有합니다

醫家諸氏는 左記境遇에 賞用합니다

貧血、病中及病後의 衰弱、虛弱質、神經衰弱、肺結核 產前產後、慢性胃腸病、精力減退等

說明書는 知名藥店에 잇슴

液狀포리타민 一五〇瓦 一圓五拾五錢 二五〇瓦 二圓五拾錢 五〇〇瓦 四圓五拾錢

「포리타민」에는 各病症에 따라 左記四種品이 잇슴니다

腺病佝僂病에는 요-드포리타민
神經榮養에는 알젠포리타민
健胃强壯에는 가나포리타민
呼吸器病에는 구아야콜포리타민

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武田長兵衛商店

製造元 大阪市東淀川區堀上町 株式會社 大五製藥株式會社

朝鮮各地有名藥店에서 販賣

33-610(O)

病中의鄭濂守以下 被告百一名出廷

◇酷寒을무릅쓰고傍聽客殺到

洪原農組事件一回公判

【咸興支局廿二日發電報】 함남 홍원농민조합(洪原農民組合)사건의 대공판은예정대로이십이일오후한시반부터함흥지방법원에서 등본(藤本)재판장의주심으로 개정되엇다 당일은추위가 령하오도라는 혹한임에도불구하고일은아침부터방청인이수백명이나 쇄도하야 법원내외는 대혼잡을이루엇다 오전십일시부터 피고들을 형무소로부터호송하기 시작하야 열두시에 호송이 끗나자 재판장이 착석하고방청권을 가진피고들의가족과 신문기자들이 자리를차지하엿스며 정사복경관 십명과 간수이십여명의 경계중에 엄숙하게 사건의 주모자정렴수(鄭濂守)를 비롯하야 피고백명의 주소성명년령직업등을 황경한후검사로부터공소사실을 말하고 재판장은 공개금지로 하고 재판장은 심리를 진행하다가 오후네시에 첫날의 공판은 폐정하엿다 속행공판은 미정이다 수모자 정렴수는 신병으로 법정에서도 몹시 신음하엿스며 다른피고백명은 모다비교적 강해보엿다

『米突法』實施 五個年延期決定

豫算關係로勅令으로公布할터 朝鮮서도이에隨從할듯

【電通東京電話】 이십이일의 각의(閣議)에서 명년칠월 일일부터 실시하게되엇든 개정도량형법(改正度量衡法)즉『메-돌』법의 시행케일자 유예긔한을예산관계상 오개년간 연장하기로하고 이에딸아 연긔에관한칙령안(勅令案)을 결정하고 곳상주(上奏)하야 어재가(御裁可)를바다가지고 명년중에 공포하게되엿다한다

(註)=일본에 서의 미돌법실시는 오래전부터 만흔론의가만엇다 일부에서는 국수적(國粹的)립장에서 외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미돌법을 준용할것업시 종래대로 도량형긔를사용하는것이국가경제상으로보아도리익이라고주장하야 그운동은유력한정치가학자들중심으로상당히유력하다 그러나교육가나국제무역을 하는실업가 군대측또공업기술관계자로는 단체나 개인이모다미돌법의실시를찬하야권긔반대설을 반박하여와서 이미돌법의 실시는임이 필요시되지오래서 당연히실시될것으로 되여잇서 조선에서도 소화십년도부터 실시하기로되여잇섯다 이번에 예산관계로 일본내지에서 오개년간 실시를유예한다면 조선에서도 당연히 유예긔간이연장될것으로 관측되고잇다

네시에열리는리사회(理事會)에 일임하기로하고폐회하엿다한다

公式通知바든後 研究決定할터

◇山澤商工課長談

권긔와가치『메-돌』법실시연긔에대하야총독부산택(山澤)상공과장은다음과가치말하엿다

『나도방금이야 처음듯습니다 만일일본내지에서 실시유예기간을 오개년간 유예한다면 조선에서 소화십년부터 실시하려든것도 결국 연긔하게될것인데 공식으로 통첩이잇은후에 총독부에서도 연구하야실시긔를다시결정하게될것입니다』

天道教人日紀念祝賀

시내경운동에 잇는 천도교회에서는 이십사일의인일긔렴일(人日紀念日)을 축하하기 위하야 동교 청년동맹 경성지부(青年同盟京城支部) 주최와동소년부(少年部)후원으로그날밤에축하여흥대회를 동긔렴관에서 개최한다는데 그余興으로는독창, 합창, 가극, 동요극등이라하며 일반에게 공개하리라 한다

滿鐵懸賞論文當選한 『로빈손』孃來京豫定

요전미국『시카고』시에서열린박람회에서만철주간(滿鐵週間)의 현상문제에당선한학무란쉬스●보빈손양은현상금만주왕복려비오백불을 바다가지고 동양을방문하는데 오는이십오일 오후다섯시경성에 드려와 일박하고이튼날봉천으로 향하리라한다

就職詐欺一件

취직란에 울고잇는사람도 잇거니와 취직란을 리용하야삶을유지하는사람도잇다 원적을 경성부원정(元町)삼정목에두고주소가 일정치안은강도야지(姜道也之)(三二)는 재작년봄취직을식혀준다는 구실하에서 사긔를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일년징역을맛추고 금년봄에 출옥한바그후에도역시 취직을 식혀준다고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일원이원 내지 삼사원식을 십여개소에서 사긔한 사실이발각되여 목하룡산경찰서에서 구속취조를밧고잇다

清州郡是製糸會社 工場에서發火、死傷은업다

경무국착전=충청북도청주군청주읍화천정(清州郡清州邑和泉町)에잇는군시제사회사(郡是製絲會社)공장에서이십일 오후칠시반경에 불이이러나 동공장사무실(事務室) 기타를소진하고 진화하엿다는데 원인은온돌을수선하고 불을피히여 인 관계이고인축의 사상은업스나 손해금액은 약칠천원에달한다고한다

順天金富豪의作人 兩郡作人賭租不納

一個月間持久戰을繼續코對峙 小作料過重徵收에反對

【光州】 과례(過例)는말할것도 업거니와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발생한손실까지도 이것을 농민에게 전가하라는 지주와이것을부담케된소작인들사이에리해충돌이 생기여 그것의표면화로 중대한사회문제를 야긔케된것은작금의소작문제만안이어니와특히 금년여름이후 전고미문의수란과풍재를 당한 전남지방에는 추수긔를다처지 분규한문제가만히 발생되엿다함은 련일지상으로 보도되고 잇는바이어니와 광주 전남순천을 주심으로전남동부지방에는 근년에 보기드문 큰소작쟁의가 발생하엿다 그내용은 전남의 최미지주인순천(順天)김종익(金鍾翊)씨는년이만여석의 추수를 밧는데그소작인의 총수가 무려륙천여명이 라고한다 그런데 권긔김씨는 례년에는 소작료를 정평(定坪)으로 하든것인데 금년에는 관례를 곳처평해(坪解)로 소작료를 작정하야 례년보다이할 내지오할의 증수(增收)를하게되엿다한다 그래서 금년가튼재년에 그와가튼 소작료는전부의 다하야 각지소작인들은 각각지주와군청에 그부당 하다는뜻을 진정하엿스나 지주측에서는 절대로이것을 용허할수 업다고거절함으로 이에 분개한소작인들은지주를 상대로 항쟁을이르키여 륙천여명의 소작인들이 일체결속하야 례년보다는 은 아죽까지조곰도 소작료를납부치안코 잇다하며 일부소수의 작인들은 지주의작정한 소작료를물관하고 례년과가튼 소작료만을 납부한다는데 지주는미진한부분을 더주장한던터 소작권을 박탈하겟다고 위협을한다고한다 이러케하야 고집하는지주와 벗티는소작인사이에는 발서일원에 공한지구권을계속하고잇다는데당지관청에서는이것을극히중대시하고철저한조사를하

公州檢擧事件은 新義州事件과關聯

金泰憲만押送、二名은釋放

【公州】 충남경찰부원이공주에 출장하야 당지청년리영근(李榮根) 리도원(李道元) 김태헌(金泰憲)을 검거하야 공주경찰서(公州警察署)에유치하고엄중취조를 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사건의내용은 신의주(新義州)에서발생된 공산당관계사건과 관련한것으로 지난십칠일에 권긔김태헌은 신의주경찰서(新義州署)로 압송하야 즉시 신의주검사국에 송치되고 리영근、리도원량인은 무사석방되엿다한다

自動車에轢傷

이십일일 오후아홉시반경에 종로(鍾路)이정목 삼십팔번지아페서 시내충신동(忠信洞)일백오번지 해동자동차부운전수 김흥진(金興鎭)이가 운전하는자동차에 공평동(公平洞) 일백륙십륙번지 장덕윤(張德潤)의안해 김정순(金貞順)(四二)이가치여서 얼골과다리에 중상을당한것을 곳종로삼정목구주(鍾路…)의원에입원치료하고 응급치료를가하엿는데 전치주일의중상이라고한다

裏陽農組事件 年內豫終

【元山】 함흥(咸興)지방법원원산지청에서는 년말을 당하야크게분망중이다 현재 공판에회부되여잇는것이 약 삼십건이요예심에회부된것이사건인바공판은전부 금년도를 넘기지안흘작정으로 년내에 심리를맛치리라하며 예심은 법처해를거듭하여오든 양양적색농민조합(襄陽赤色農民組合)사건만은 근일중에그종결을보리라하며 그남어지사건은 새해로넘기리라 한다

孤兒救濟會臨時總會

조선고아구제회(朝鮮孤兒救濟…

安圖縣武裝共黨 三道溝襲擊劃策

◇警官隊와接戰後敗退

【間島龍井廿一日發】 안도현(安圖縣)공산당 유격대장 김동진(共産黨遊擊隊長金東珍)이하 반만군과 공산당부하 팔십여명은 지난 십칠일추경(秋頃)에 렴수하(?)에서 이도구(二道溝)에 이동하엿는데 그지방에근거를둔 공산당을 합한총세력 삼백여명이 목하비밀리에 년말년시를 기하야이도구를 습격하고도 삼도구(三道溝)서북 구리반의흥흥(興興)에대략사십명의공산당이 모이어 안도현내의반만군과 련락하여 머지안어 삼도구를 습격하려고 준비하고 잇다는 정보가잇서 삼도구에서 십구일 일본과만주 경찰대십팔명이출동하야 약이십명의 무장공산당을만나 교전한결과 공산당측은삼명을써부리고 장총、탄약、창동을압수하고동오후세시에돌아왓다

假拾得金憑藉코 五百餘圓을詐取

潛伏中의四名을逮捕

이십이일새벽네시종로서 (鍾路署)사법계형사대는 시외공덕리(孔德里)일백팔십아번지를습격하고 그곳에잠복하고잇는 네명일단의사기단을 체포하려고 하엿스나 그중일명은 어느새도망을하고세명만검거햇나 그들은경북성주군대가면유촌리(星州郡大加面柳村里) 권영실(田盈實) 충남공주군신하면 수천리(公州郡新下面壽川里) 리순회(李順華) 충남론산군련산면 표정리(論山郡連山面表井里) 유진두(兪鎭斗) 등으로 모다 전과이범혹은삼범의경력을 가진사람들로서 네명이 공모하여 가지고얼마전에 조치원 장사차로 상경한충북제천군 백운면 평동리(堤川郡白雲面平洞里)박홍철(朴興哲)을 조치원에서 친하고 모다아는처하고 동행을하여 로다리고가서 그중의 한사람이 길에서 륙천오백원이든 돈뭉치를주어엇다고하고 그것을 박홍철에게맛기고 그가가지고잇던 현금오백십칠원을 바구어너코는 그만모양을 감추어버린것을 비롯하야 가튼수단으로 한범행이 수차에달한다는것이다

生肝먹은癩病者 四名에死刑求刑

『구은살은소고기맛과갓다』고泰然答辯

判決言渡는來二十七日

【大邱】 과보=어린아해의생간을내여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미신으로 봉화군춘양면 애당리(奉化郡春陽面艾堂里)에사는 김경락(金慶洛)의 이녀현숙(賢淑)이라는 세살먹은아해를죽여 문둥이 봉화군소천면고선리(奉化郡小川面古善里)권중호(權重虎)(三?)과 역시가튼동리에사는 김상삼(金相三)외 다시 권긔량명에게 돈백원을 바더먹여다가 살해한 가튼동리의권인석(權仁石)과 차동수(車東洙)등 네명에관한 살인급사체손괴사건은 이십일일대구지방법원에서 굴부(堀部)재판장 주심으로계속공판이열렷는데피고중 권호경은 재판장의물음에 『간은 생으로먹엇지마는법적다라살은 구어서 먹엇는데목소 고기맛갓습되다』하고 태연하게 대답하얏스며 피고김상삼은 『고기는 쇠지안코 그대로 물떡 삼켯습니다』하고 방청석에 소름을 끼치게하여주엇다 사실심리가 끗난후 렵회검사로부터 준렬한 론고가잇슨뒤 피고네명에게 각긔 사형을구형하엿다 판결언도는오는이십칠일이라한다

安東縣市에 凍死四名

零下十八度!

【安東縣】 안동에는 십륙일에 약오촌가량의 눈이나리고갑작이 북풍이 불기시작하야 온화하든 안동시내에는 십구일밤에 기온이 갑작이나리기 시작하야 령하 십팔도가 되야 금년의 최고긔록을 보히고잇다 이치운녀에 거주할집도업고 먹을것 넘을것업서서 거리에서동사한사람이 두명이고 모루히네중독자 두명도 무참히 거리에서 동사한 시체가잇서서 행인의소름을 끼치리만치 참혹한장면을 일우엇나

▲府內孝悌洞五一尹秉哲(三?)▲高陽郡漢芝面新堂里安卜淳(三六)▲崇仁洞一九八崔炳根(三?)▲蓮池洞一五六崔運國(元)▲鍾路四丁目七 仁寬(?)▲孝悌洞五一朴貴業(二九)

는일방 진부에로력하고 잇스나 일반은 그추이여하를 크게주목하동의 성과를엇지못하고 잇다 중이라고한다 는바 사건이중대한 사정이만흠이라고한다

梨專基督青會서 今年도聖誕禮物

◇四班에나누어配給

시내리화전문학교(梨專)에서는 동교내에잇는 학생긔독청년회(學生基督青年會)의주최로해마다『크리스마스』때이면은빈민들에게 성탄례물(聖誕禮物)을 주어빈민을 구제하야왓든바 금년에는 미국에잇는동교 후원회에서 오는경비이외에 동교학생일백구십명과 직원십여명이 각각더레물을모아네반(四班)으로난우어성탄희를열고레물을논아주리라는데 제일반은 이십이일에 신촌(新村)동교신축장에서 그곳의인부들의가족들에게 논아주고 제이반은 관동(館洞)피랭동(避冷洞)에서역시레물을난우어주며 제삼반은 왕십리(往十里)와 수색(水色)에서학생긔독청년회부근의빈민에게역시레물을난우어주며 제사반은 동교내에서유치원농촌부의주최로역시례물을난우엇다는데 례물은 의복、쌀등여러가지라고한다 (사진은청탄례물분급광경)

賭博團一網打盡

이십일일저녁 아홉시 삼십분시내 종로사정목 칠번지송월주점(松月酒店)에서 여러사람이 모히여도박을하는것을 소관동대문경찰서사법계에서는 네명의 형사가 현장에 출동하야 검거하는동시 여섯명의 도박군을 검거하야목하 취조중이로 그들의 주소와씨명은 다음과갓다

朝鮮音樂을 日本全國에中繼

◇一月八日부터實施

조선소리를 일본에 방송하야일본안『라듸오』청취자에게 들려주려고 경성방송국에서는 오래동안 일본방송협회와 협의중이든바 드듸어 완전히의론이결정되야 새해 정월팔일에조선아악(朝鮮雅樂)『아리랑』등의 조선색채가 농후한『푸로그람』을 작성하야 전일본에 중게를하기로되엇다 그러고 압흐로 경성방송국에서는 한달에 한번식전일본에 중게방송을 게속하여할터이라한다 정월팔일의 방송할 순서는 금청권 리왕직 아악부(李王職雅樂部)의조선아악과 왕수복(王壽福)양의 류행가(流行歌)독창등이라한다

岩倉公爵의妹 出監하자自殺

【電通東京電話】 동경삽곡(澁谷)일번지 공작(公爵)암창구영(岩倉具榮)씨의누이정자(靖子)(二二)는시월공산당 사건의『마라손』으로서 활약하든중 금년봄사월검거되여 취조를 밧고잇든바지난달 예심이 종결되여보석(保釋)감 하엿다가 이십일일오전여섯시 자긔집에 올분손경동맥(頸動脈)을 예리한 서양면도로 버혀서 자살한것을 집사람이발견하고일시는소동을일으켯다고

歲暮慈善演藝大會

日時 今月二十三、四兩日午後七時
場所 市內長谷川町公會堂
主催 오ー케레코ー드朝鮮支店
後援 朝鮮日報社

入場料 五十錢 三十錢 (本報讀者優待)

演藝目錄: 管絃樂、떼너獨唱、新民謠 流行歌、南道소리、西道소리、京畿소리、喜劇、史劇 模擬吹込

出演者: 徐祥錫、申不出、李蘭影、申一仙 羅品心、康錫鵬、文湖月、成光顯 金星欽、朴芙蓉、林芳蔚、金宗基 崔順慶、孫牧人外數人 (音樂指揮)崔虎永

書簡文이면무어이고알수잇는 破天荒의大景品付亂賣

完備로日本第一 大好評의書簡寶典
◇組合式과新案御典式의長處를採取한
◇新時代에適應한新講義인無比의名著
手紙寶典 大

本書는書翰文講習會에서十數年苦心한結果編成된新式考案의理想的『尺牘講義』이寶典인즉一次冊張을젓치면아모리片紙쓰기서투른이라도生覺나는대로片紙를술술即席에서쓸수잇소, 本書는書簡文의初步로부터說明하야片紙文의法則△日用文△商用文△候文△葉書文△口語文△男女兩愛의片紙△趣味片紙文其他모든片紙쓰는法과數百의文例를揭하야親切히講述한바實로便利調法이外에업슴.
定價三圓이나 大特價壹圓四十錢
二大附錄添付 第一冊附錄 現字草書辭典 第二別冊附錄 屆書法
總クロース金文字入 豪華版上製美本
前金送料十八錢 代金引換はハガキ申込次第

無代進呈 特別景品 流行型腕巻クローム側優美 時計形方計指針正確保證付 實物寫眞
●이特別景品은箱子에넣어註文
●書籍과同封包裝은嚴重히小包郵便으로送付함

大景品進呈 『朝鮮日報』愛讀者라고明記하사 『手紙寶典』註文者에限하야本書普及大宣傳을爲하야上記實物寫眞의特別景品을一個式無代進呈

發行所 東京市小石川區日向台町 振替東京一八六一一番 大昭堂書店

가을趣味는가메라로 實物宣傳目的(一名一個) 暗室不用 家庭用實寫眞機無代進呈
東京小石川

山梨水晶 水晶과印章의王 注文은日本一의山梨水晶 目錄(珍品이만히잇스니申込次第送呈)
原產地의工場부터直接提供의好機 只今곳注文하시라 送料前金十錢 代引은二十錢이요
實印은價値 못할水晶印 四分角또는丸一寸丈 本皮サック付 彫刻入 金一圓
シャープペンシル付 認印 三分丸一寸二分水晶印材入 彫刻付一本 一圓
水晶パイプ 高價하고經濟 一寸七分丈サック入 一圓 卅錢
水晶眼鏡 五〇番等晶入セルロイド枠(サック付) 四圓五十錢 近眼老眼五十錢高
山梨縣大河內 山梨水晶株式會社 振替東京二二一七八番 電話下部七番身延山六八番
京城支店 京城本町二丁目三五

京城 金 金銀地金分析 合資會社杉山商會 高價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番

독일제 純正商標見本 仁川府支那町 直輸入販賣商 同福公 京城總賣店 京城南大門通四丁目一三一 李泰漢商店 電話本局二五一三番

詩評論 羊 創刊號 作劇 附錄 三三年作品總目錄 文人名簿錄 京城寬勳洞 振替京城二〇六一一

本社十六週年 祝紀念謝恩週間 十二月二十一日書間부터

團成社 永遠의微笑 成吉斯汗의假面 럭세數線

第一劇場 시라손新婦 누가죽엿나 淑女俱樂部

賣却된沙里院邑電의남은問題

退職者慰勞金이 俄然問題化

邑長排斥運動惹起

【沙里院】 황해도사리원읍영전긔(沙里院邑營電氣)는금년십월부터사리원전긔주식회사에양도하엿슴은 세상이 다ㅣ아는사실인데최근에와서 그전긔 매각한돈중에서륙천사백여원을전긔에관계가잇는직자와기타전긔사업에 공로잇는 사람에게분배하라는계획이잇다는말이사리원읍민간에현전되자 읍당국이 읍민의의혹의초점이되여 일부 에서는이것을 계긔로읍장의 배척운동까지 니르킬형세가 뵈인다는데 그사건의 전말을조사한결과가다음과갓다고한다

宇佐見邑長談 년도초에 륙천사백여원을 급여 급수당(給與及手當)으로계상하엿는바 사실에잇서서는 급여와 수당외의지출도잇는데예산편성당시의실수로 전긔사업의 지출은급여(給與)나수당(手當)이아니면지출하지못하게되엿슴으로 이미 예산에올나잇는륙천여원중에서이천륙백구십삼원을감하여다가잡비라는항목을 중설하여 그항목에다금여수당 예산에서 감한금액이천 륙백구십삼원을 계상하여가지고 전긔사업에 관한조사진정등에 요한 려비가튼것을 지출하라는데 지나지안는데 이것을 오해하고전긔판돈을 분배한다는 선전을한다는것은 천만유감 이외다운운

이사건에 대하야 십여명의읍회의원중에서 단독이반대 의사를표명한이정수(印廷洙)씨의말을드르면 다음과갓다

◇印廷洙氏談 예산은전긔사업이읍영(邑營)으로잇슬때의 예산이지 전긔사업이다른손으로 가고 업서젓는때그예산을실제버리라고 하는것은 부당한중에 또부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전긔관계 직원의퇴직료도 나는십오할을 주자고주창하엿스나 중과부적으로 맛침내 통과되지 못하엿습니다만은 읍장은 우리사리원읍위하야 하는일은 업스나먹는데는눈이밝어서얼핏천원이라는거액을 자긔가먹을 계획입니다 하등의 공로가업는 읍장에게천원이라는 금액을 줄돈이잇스면 도립병원설치비에 사오백원의 빗을지고잇스며 제이보통학교에도 지금 삼천여원이부족되여서 토지대금도 지불하지못하고 잇는이때에 그런 쓸데업는데 줄돈이잇스면그런 요긴한곳에 쓰는것이당연하겟지오 그와가티읍장(邑長)에청의업는 무용(無用)는단연코 배척하여버려야 사리원읍의 장래는 희망이잇슬것입니다 그리고 전긔관계직원의퇴직료로 말하드래도 그키퇴직하고 마는것이면 당연히주어야 하겟지만은 계속하야채용하기로하고 사업을 양도한것이니 다액을 줄것은업슬것입니다 운운

이안에 찬성한읍의원편택수(片宅洙)씨의말을 들으면 다음과갓다

◇片宅洙氏談 관청의관리나 회사의사원이 퇴직하게되면 퇴직료를주는것은 물론이고 관청이나 회사가해산이되면보통시보다도우대하는것은 일반의례가되엿섯다그런데이번읍전관계퇴직자에대한퇴직료문제를가지고너무말이만흔것은 천만유감된일로 생각합니다 그직원전부가 전긔회사로 채용되엿스니 퇴직료를줄필요가 업다고하나 원단해직을한이상에야 그취직을 하고못하는것은 별문제로하고 그에대한 위로금을 주는것은일반의 관례가되여 잇슬뿐아니라 이청상해직하는때에 그의로금을 주는것이 당연한일이겟지요운운

신삼어서 夜學費充當

【伊川】 이천군 학봉면 회산리(鶴鳳面回山里)산막동의록롱이십명은 자발적으로 매출전부터 로동야학을 시작하고 조동일(趙東一)씨에게서 협신히교수를 밧고잇는데 긔관한일은그생도들은 신을삼어서 이것으로야학비용을 충당하여 가는것이라한다

墨湖港橫斷道路의 橋梁等工事要望

平坦地工事는完了

【江陵】 강릉군묵호(墨湖)항은 해안에잇서서 중요한피난항(避難港)으로 년년에 국고와지방비로 삼만여원을 드려축항공사를 시행하야 면실공히피란항의역할을 충분히 하고잇는데이묵호항은 현재 이등도로에서 십여정이나떠러저 잇는관계로발전상 막대한 지장이잇다하야 주민들은 동면북방에잇는 로봉교(魯峯橋)에서 해안으로 도로를 변경하면 해안에잇는어달(於達)대진(大津)의두부락을통과케하야 두동리를 번영케하며동시에 묵호항도 발전시키자는것으로 작년부터 민간의부담으로 륭할만한 평탄한곳의 공사는준공하고 지금은단지 교량가설할곳과 란공사만이 남어잇슴으로이것은도지방비와국고보조금을바다가지고 하려고 망산면장한창우(韓昌愚)씨는 수차군당국을통하야 도와총독부에 신청을하얏는데 아직구체적으로 당국에서 의사표시가업스나 명년도에는 실시될것을굿게밋고 잇다고한다

平北四郡에서 農林校設置陳情

代表七人이道에陳情

【新義州】 평북강계군내에농림학교(農林學校)설립요망의소리는 전부터 자못高하왓는데명년도의 예산긔를 압두고강계자성(慈城)후창(厚昌)위원사군이련합하야 명년의 요망을달성코저 명렬이 설립운동에착수하야지난이십일강계군내에서면장손응린(孫應麟)전군수김석현(金直玄)도회의원류긔정(劉基貞)전시항(田時恒)김신현(金辛玄)오씨와 후창에서도 회의원주중호일(中好一)리원풍(李元豊)두씨가 련메래신하야즉일토사(土師)지사와 내무부장지방과장학무과장을 방문하고 농림학교설치의 요망을진술하엿다고 한다

靜戎幼稚園 認可願提出

【順川】 평남순천읍내에잇는정융유치원은 식산조합(殖産組合)과청년회에서 토지삼만여평의긔부를밧어 인가원수속을 한다함은 긔보한바이어니와 만반수속이다되여 이십일에는 당국에원서를 제출하리라는데 원사를개축하기까지는 종전대로 의영학교(義英學校)교실의 일부를사용하지안으면 안될 형편에잇다고한다

歲暮의大田市內 竊盜團이橫行 市民은不安狀態

【大田】 요사이세모가되며일긔가 매우추워지는바람에 대전시내에는 절도단이 횡행하야일반시민는 크게불안상태에 잇는터이며 이를방지하기위하야 대전서에서도 서원총동원으로 불철주야하고 지난이십일일 부터 특별경계를 시작하는터이라는바 일반시민는 특히주의하지안으면아니된다고한다

現金四百圓强奪한 强盜二名逮捕

星州署에서嚴重取調中

【大邱】 지난십이일새벽한시경에 경북성주군 월항면안포동(星州郡月恒面安浦洞)에사는박경순(朴寶順)(六六)의집에는 강도한명이 침입하야마츰박경순은외출하엿고 그의처와어린아해들이곤이잠들어잇는것을 깨여어르킨후 금품를강청하야 선반우에 올려노앗든 현금사백원을 강탈도주하얏는데 급보를밧은 성주경찰서에서는 시각을노치지안코 서장이하 초동원으로 현장을검증하는동시에 비상선을느리어 범인을엄탐중 마츰내십구일 오후다섯시 체포하얏는데 한명은 달성군하빈면상곡동(達城郡河濱面相谷洞)에사는 리현수(李玄水)(三九)요또한명은 성주군월항면 안포동리외득(李外得)(三八)이라는자라는데 목하엄중취조중이다

本報讀者優待

【瑞山】 금번당지에서 새로히 개업하게된 상훈의원장 홍덕유(洪德裕)씨는 본보서산지국관내독자에 한하야 특별우대할인하기로 하얏다한다

地方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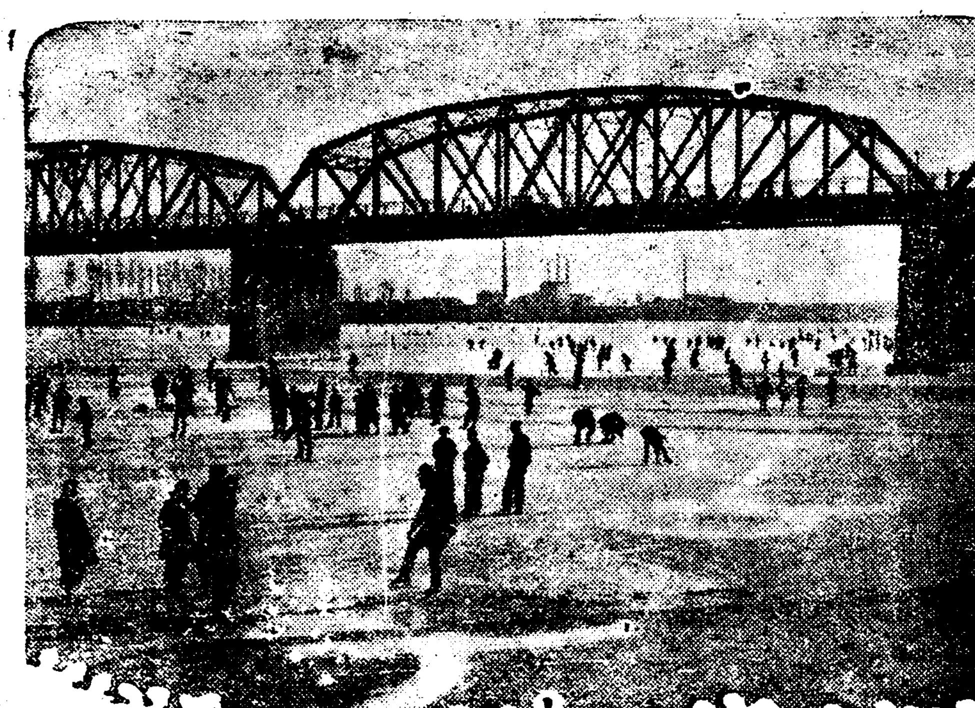
▲吳天錫(普專敎授)博士와金聖南(正義女高普敎諭)孃과의結婚式은二十三日午後二時平壤府內南山峴敎會堂에서文約翰牧師의主禮로擧行한다고

▲金聖培氏(利川靑年團長)人事次지난 十六日本社利川支局來訪

▲伊達四雄氏(京城府尹)赴任人事次十八日本報大邱支局來訪

大田 星齊畫伯展覽會

▲日時 十二月二十四、五兩日
▲場所 大田本町東本願寺
◇主催 大田共榮會
◇後援 朝鮮日報大田支局



◇大同江의結氷 銀盤을滑走하는「스케이터ㅣ」

【平壤】 십구일부터 급격히떠러지는 온도는 이십일밤에는 령하십칠도구분 이십일일에는 십칠도팔분의혹한이계속되여 대동강과보통강은 결빙되엿다 대동강어름두께가이촌보통강은 삼촌으로불과하여「스케이터ㅣ」들은 경쾌를 빼앗기고 ... 하고잇다

雲峴宮의봄

琴童 作 / 靑山 畵

廿一의三

가마를 몰아 가지고 홍선대으로달려간 성하는, 누구를 부르지도 안코 뎃자로 홍선의 침실으로 뛰어 들어갓다

「대감!」

「어?」

홍선으로서는 희귀한 일ㅣ 무슨 책을 드려다 보고 잇든 홍선은 어 칠입한이에게 눈을 크게 하엿다

「대감! 축상낫습니다 어서납으세요」

홍선은 눈을 성하 에게로 구을렷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오히려 온화한 음성이엇다

「전하께서 대조전에서 승하하섯습니다 어서 대비마마께 들어가 뵘ㅣㅣ」

홍선은 알아 들엇다 한순간 몸을 흠칫하엿다 그런 뒤에 자긔의 흥분을 싹어렴인지 눈을 감엇다.

눈을 감고 잠시 안저 잇다가 홍선은 고요히 몸을이르켜서 북쪽을 향하여 두번 절하엿다

「그래서 대비마마에서 나를 부르시든가?」

「네。어서 잠시 들어 오십샤고」。

「알엇네。나는 안 들어 가는 편이 낫겟지。공연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업스니깐…… 대비마마께 들어 가서 어보(御寶)를 얼른 간수하시라고 ……다른 손이 닷기전에 어서 간수 하시라고。나는 내일이고 모레고 조용히 들어가 뵙겟네」

성하는 눈을 들어서 홍선을 보앗다。그러나 들은 눈을 도로 곳 아래로 떠러트렷다。

아랫목에 단연히 안저 잇는 그 인물ㅣ그것은 그새롭에 청하와 함께 술를먹고색향에 출입을 하든 그 홍선이 아니엇다。

거대한 충동이 그의 마음에 생겻슬 지금에 잇서서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안코무표정한 얼굴로 안저잇는 이 인물ㅣ 지금 마음ㅅ속에는 어썬 배포를 꾸미고잇길래、이런 배범한 경우에、다른사람가트면 순간을 유예치 안코 대비에게 달려 갈 이여여、자긔는 내일이나 모레에 들어 갈테니 어서 다른것은 그만두고 어보나 간수하기를 부탁하고 잇나?

성하가 홍선의 집에서 나와서 다시 대궐로 들어 가려고 몸을 가마에 실을 때에 저편에서 한무리의 소년들이 연을 날리고 잇는 것이 눈에 뜨엿다。

보매 그가운데는 홍선의둘째아들 재황소년도 바야흐로 자긔의 다홍치마를 올리려고 얼비를 어루고 잇는 즈음이엇다。

아못것도 모르는 소년ㅣ 지금 연을 올리려고 애를쓰고 잇는 그 소년의、우에、인제 수三일내로 떠러질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를 생각할 때에 성하는 멀리서 나마、뜻하지 안코 그 소년에게 허리를 굽혓다。

ㅡ올리십시오。하늘 끗까지 올라가려는 당신의 운명로 가치、노피 노피 하늘다은 곳으로……

또다시 대궐로 쏜살가치、달려가는 가마에 몸을 싯고 성하는 몸을 들어 가면서 소년들의 노는 양을 돌아 가번이나 속으로 축수하고 축수하엿다。

다시 금호문 박게서 가마를 버리고 대궐 안으로 들어서매 대조전이며 그 외각들에서는 남녀의 곡성이 은은히 들려워 왓다 대조전대소들우에는 변을 듯고 달려온 재상들의 신발이 어즈러히 노혀 잇고 내관 녀관들이 분주히 왓다갓다 하고잇섯다 그것을 곗눈으로 보면서 단숨에 대비전까지 들어가 보매 대비는 성하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하여 벌서 대조전으로 나간뒤엇다

성하는 대조전으로 몰아서나왓다 승후관인 자긔로도들어갈 긔회가 업슬가 하고어즈려운 마음을 누르면서 대조전을 두고 빙빙 돌고잇섯다

권각 안은 무득 조용해젓다 대비에게서 무슨 하교가 잇슨 모양이엇다

中央公論

本誌ならではの此偉容！新年号特價壹圓

東京をおもふ…谷崎潤一郎

近事憤慨之記…直木三十五

文士が花を引くのと、政治家が待合に行くのと何方が悪い。おどん（吉井勇子のあだ名）が立腹して「さあ來い」なんてやつてるのは少々醜態だが、これにも無理からぬ所があるんで、大體日本の文士はあんまり冷遇されて過ぎるぞ。

萬葉集の鑑賞…折口信夫

新年の古句…高濱虚子

（詩）…北川冬彦

山本有三論…正宗白鳥

批評界の第一人者正宗氏が、小説壇の最巨所山本氏を解剖。この巨星にしてこの巨言あり。山本氏の赤裸々な全貌をつくして餘りなき言々句々、敢て其眼の士の机上に呈す我等が新春の贈物。

（短篇）双瀬川…里見弴

（夜話）雨…宇野千代

夜明け前…島崎藤村

陥穽…武田麟太郎

或るエンゼルの死…廣津和郎

明るき黄昏…鈴木清

斧琴菊…泉鏡花

懸賞創作當選２篇

二等一席 葱の花と馬…伊東祐治

二等二席 深夜…小山いと子

日本外交の基礎…廣田弘毅

政黨解消論…松岡洋右

非常時の聲音

政治の非常時…佐々弘雄

經濟の非常時…金原賢之助

外交の非常時…稻原勝治

アメリカのソ聯承認の意義…大山郁夫

福建獨立の新動向…波多野乾一

實力山本權兵衛…伊藤正德

新聞人・村山龍平…高原操

世界の打診

朝鮮統治の大道…宇垣一成

眠れる獅子は遂に立つた！政界のスフィンクス宇垣總督の、舌端を迸しる慨世の大論考。これこそ非常時日本の青年讀本ともいふべきもの！讀め！而して沈思せよ！

一九三四年政界展望…佐々弘雄

泣き笑ひの人生…佐々木邦

大衆藝術の陣營…小林一三

經濟ブロック論…伊藤秀一

ラグビー爭覇戰…本領信治郎

思ひ出す樹木…新村出

東株理事長が決まるまで…小汀利得

北支・滿洲・朝鮮…柳澤健

試驗離婚？…中川善之助

パスの經濟學…增井幸雄

運命の神秘…平田内藏吉

新避姙法…中島浩吉

法律の身の上相談…末弘嚴太郎

外遊十三年…藤田嗣治

船場…佐野繁次郎

はだりしもの…辰野隆

初冬の日記から…吉村冬彦

懸賞募集規定！

新映画論…大森義太郎

教育疑獄の審判…高島米峰

我が議會制度の前途…美濃部達吉

（正義の人美濃部教授のこの正論！）

解体を前にせる舊支那の社會・經濟…平野義太郎

國際聯盟の没落？（亡び行く國際聯盟の前途を見よ！）

輿論の社會性と反社會性…長谷川如是閑

三面記事批判…K・T・O

（口繪）戊…小林古徑

横田喜三郎

豫算問題と内政改革…土方成美

數學の國際化と產業革命…小倉金之助

別冊附録 中央公論年報 1934年版

向坂逸郎・末川博・佐々弘雄・木村毅・廣瀬謙三監修 堂々四百頁!!

非常時世界の百人物

君知るや？ ショウタンを、サローを、ジエニを、アランを、ケーンズを、フリースを、張公權を、シエラーズを、ローガンを、ハーストを、マンを、マティスを、ラヴェルを、ベルグネルを、ガルボを、シュナイダーを、知らなきやともかく恥ですぞ。ドルフスを、アインシュタインを、フォードを、モルガンを、サイモンズを、ジードを、ピカソを、メロンを、ホワイトマンを、タイロフを、ルウビッチを、チルデンを……。こんなに完全な、そしてまた、讀んで面白い人名辭書は眞に空前絶後のものだ。我編輯部のこの努力さ、錚々たる執筆者群のこの苦心を見よ！

非常時の正体は何か

非常時國民全集 全六巻 一冊一圓

全面的な非常時の實相が此の全集によつて判然と解明されてある。

東京丸ビル中央公論社發行

學藝

思潮中心으로 본 33年度文學界 [六]

白鐵

그러나 여기서우리들이 품惠해야할것은 今日의自由主義에따하야 우리들은 一般的으로 進步性을是認할수업다(今日의自由主義에는 그內容과性質에잇서 여러가지種類가잇다!)는것과하게 그것이 進步的要素를가지고잇는自由主義인境遇에도그自由主義的인進步性에는一定한限界가 잇다는것이다 여기서 이限界性에 대하야 苟苟하게要함

事情 은되지못하나 무엇보다도 이상에보아온自由主義作品에대하야 判斷할때에도,『山莊小話』에서 李無影氏는새롭은어머니를 漠然하게抽象的으로 그런缺點이잇는이외에主人公은 다만 새롭은어머니에대하야 漠然한同情的氣分을注할뿐이오 그이상主人公에게積極的熱情과實踐性이提示되여잇지아니하며 『人形의 집을나와서』에서도 蔡氏는明確한組織的方面에대한連結과관련하야女主人公의모든行動을發展식히지못하고 너무漠然한方向아래서『이자고인』하게取扱해간 過失이잇스며 李孝石氏의『豚』에잇서도 李氏는 그作品內容이참되게本的方向으로發展되려고할때에 進步的作家로서 勇敢히그眼界를넘어서지못하고 突然한汽車의 通過로서의 無力한解決로서, 作品內容의 不幸한 消極性을保持하고잇는것等은 어느것이나 自由主義的作品으로서 一定한眼界를넘어서지못한것이라고理解된다

그러한意味에서 우리들은一方으로 今日의自由主義的作品의進步的意義를 是認注目하는同時에 다른편으로 그것은亦是, 一定한似界內에서 決定되고잇다는것을 分明하 理解해야할것이다

自由主義外지가(略)個槃을맛보앗는 今日의 不安한外部的現實에대하야 一切와 社會的信賴와 積極的活動을, 斷念하게된 世紀末의 인테리의 一部가그들의 感覺其他의精神生活에잇서서 客觀的인 外部現實에대한一切의趣味를버리고스스로

內部 的으로 主觀主義世界를 構成하게되는것은 決코偶然의 所致가 아닌것이다 近代의 모든寫實主義作家들이 外部의 客觀的現實에 대하야 關心과 興味를가진것과는反對로 今日의반動作家들은 그런外部現實(?)에대하야 內省的으로 自身의內部心理를 追求累積해가게된것, 여기에 『프로이스트』와『죠이스』의新心理主義文學이라는 것이發生하게된 社會的動因과 文化的事情이 잇는것이다 몬저 말한바와가치 이 新心理主義 文學은 今日에 잇서서 歐洲資本主義文學의 不安文學으로代表的地位를갓고잇는것이나 그勢力은 요즘 차차로擴張되여 近年에는 日本에서도 一部의

勢力 을갓고잇는것이事實이며 今年에는 조선에서도一二의作家에依하야 이流派의文學이模倣되고잇는것을, 注目해야할것이다

今年에잇서서 이流派의文學을모방하려고한作家로서는 두사람의新人作家 朴泰遠氏와安必承氏등이라고볼수잇는데 하氏는 단순히 表面을그대로通過해간感이잇스나『옆집색시』와『사흘굶은봄달밤』과『五月의薰風』에서 그것을試驗하려고하얏스며 그중에도 比較的效果的으로그努力이나타난것은『사흘굶은봄달밤』이엇다 이作品을通하야作者가 主人公의身邊에생기는모든事件 눈에띄우는모든現象을그대로새지안코 羅列해간것과그러한事件과 關聯하야幻想에서幻想을 더듬어가는心理의流動에대한追求가 쓰칠줄을모르고

累積 되고잇는것은確然히이流派의心理的傾向을 방하모고잇는點이라고 볼수잇다

33年度의詩作 ―六篇에對하야― (5)

尹崑崗

그러고보니 氏의『才能』에 冷情한判斷力까지일어버린洪曉民氏에게 이러케 무러보고십흔다―(氏에게萬若 記憶된다면!)

『푸로레타리아 詩人林和以後에는

이趙靈岩氏 를推薦하고십다』라는 氏의 無智하고輕薄한判斷은 어느구멍을 차저야될것이냐?――고

그러나, 우리는 이詩人에게서 그누구보다도 부즈런한活動性을 볼수잇다。

氏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意識的飛躍이 잇서야 될줄밋는다。그러하는데서만 槪念의露出과 觀念的인것과 空虛한表現과 方向업는 反抗等은그方向을 차저게될것임으로―것

◇

鄭龍山氏의『말못하는작별의 순간』(新階段)

이곳에는 『게집애』도 안이오 귀여운『어린애』도안이오 그리운『肉親兄弟』도안인다―만동지로서의 두렵은이의『말못하는작별의순간』아 그려저잇다 果然 그것은 슬프기도하고 깃부기도하고 무섭기도하고 또한 괴로웁기도 할것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無條件으로是認해나려오든 한개의 缺陷인『匹個的』인 쎈치멘탈性과 浪漫性이 쇠리를치고잇는것이다 그리하여 이詩를 한낫 感傷的抒情의구렁으로 마려노케된것이다

다시말하면― 이詩는(略)現實的인 高度의認識우에 그主題의

積極性 을 세우지 못하고漠然한계급적도취와 抽象的인未來에對한 승리觀念으로서 마비되엇다는것이다 아곳에 이詩가 一定한(略)的藩籬를밟고승승에도不拘하고 그의쎈치멘탈性에 사로잡혀結局은한낫 계급的外皮를입은藝術至上主義的性格을 갓게되엇다는 根本的基因이 가로누여잇는것이다 勿論 이러한傾向은 氏에게만이안이라 우리들이 오늘날까지 無意識的으로犯하여온 誤謬의하나일것이다 우리는 하로밧비 우리들의詩에 숨어잇는 藝術至上主義的殘滓物을 씻어버려야 될것이다 그러하는데서

一步前進 을約한 한개의『도움을』現實할수잇슬것이다

그러하는데는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이 詩에잇서서의『匹個的』인 感傷性과浪漫性에서 訣別을 告하여야될것이다 詩에잇서서의『情緖의搖動』의直發性이라는것은 쎈치멘탈性과는 因緣이 멀기문예이다!

統營에『文化座』創立 今月下旬에公演

금번통영(統營)에새로운목표를정하고창립되엿다는 문화좌(劇團『文化座』는그가창립기념공연(創立紀念公演)을압두고추적양(秋赤陽)씨의연출(演出)로새로운내용(內容)과형식(形式)의연극을가지고금월 하순이버에그곳봉래좌(蓬萊座)에서 첫공연을하리라는데일반이 기대한다고

敎育上으로본 우리鄕村 問題와그對策 [三]

崔久鎬

二、鄕村學校敎師

학교에서 學生을잘 안으로 敎育하여 안날에 鄕村에 中堅人物을 養成하는同時에 박그로 널니손을펴서 地方農民과協力하여 그들을 指導하는 先生이되며 農家에 主婦가되여 地方民의 希望條이될이는 即 鄕村學校敎師들이다。그럼으로 그들의

責任 은 참말 重且大하다。그들의 一擧一動은地方農民에게 莫大한 影響을 주는 것이다。丁抹에 獨逸과丁抹은 農業이非常이 進步되엿다。그리케 農産業國의 樂園을 일운것은農民敎育의 힘으로볼수잇다。丁抹에는『쇠린빈』가튼 偉大한 鄕村指導者가나서 國民高等學校를 建設하고 其外에 特히 小農階級을 敎育시키는 小農普通學校를 세워면막鄕村文化建設에 큰基礎를 세웟스니이것이 오늘날

北歐 樂園 丁抹을 形成한 根本事業이다。그러므로 우리 鄕村에서 이러한 偉大한 指導者와 無名의 敎師를 要望하는바 鄕村에 敎師는 다음과 가튼資格이 잇는者라야할것이다。

1、鄕村의自然美를 鑑賞하며 鄕村生活을 즐거하는사람。

2、恒常公正한 精神과同情心이 豐富한사람。

3、農民을 指導함에 誠心誠意를 다하되 農村樂園을建設한란 理想을 가진사람。

4、勤勞의生活을 조와하며農事에 體驗이 잇는사람。

5、敎職을 즐거하며 農民을 잘協力하는사람等이다。

三、鄕村社會中心의 學校

우리나라에서는 自來로 學校와 地方民間에는 密接한關係가업섯다。그리하여 學校가洞內에 잇다하더래도 學校는學生이 배우고 先生이 가라치는 一種의別世界로하여 自己들과는 何等의關係가업는것으로 認識하여왓다。그뿐아니라 學父兄들까지라도 이러케沒理解하며 해를隔해두고 自己의子弟가

每日 가서工夫하고自己의子弟를 가르치는 敎師가 잇는집이지마는 別노 尋訪하는일이업나, 學校當局과 學父兄間에 이럿케 對面도 容易치안커는 하믈며 學校發展에 關한일이야 事論할 必要가업는 것이다

西洋에도多少이런 弊端이잇섯다。이러한弊風을업시하고저 얼마전에 北米『아이오와』州州立大學 農村部에서 처음으로 組織되엿스니 其根本動機는 從來의 孤立無關係이든 鄕村과

學校 와의間隔을 업시하고 農民들이 學校를 自己의집과갓치하여 共同히社交하고 娛樂하며 敎育을밧는 鄕校에 社交的, 娛樂的, 敎育的, 諸方面의共同集會所로 하여 農民을한 家族으로 하자는 本意에서發起되엿다。그런機關이 生긴地方에는 農民과 學校當局과의 關係가 密接해짐으로 말미아마 農民은 學校를 自己의것으로 알어 學校에對한

負擔 을즐겨納入하고學生은 점점增加하여 매우아름다운成績을 收穫하는中이라한다 우리鄕村에는 學校數도 만치안코 會合의數도 퍽 적은데다가 間或잇다하드래도 集會場所도 因하여 큰困難을當하는일이非一非再이다그러니우리鄕村學校에서도 下學한뒤에校舍를使用치안을때에는 社交、娛樂의 目的으로쓰면 讀書室及 集會室의 目的으로쓰면 農村에 더욱 有助가 될것이니 이는 一石兩鳥라고 할수잇는것이다。

世專劇의밤

日時 正月十二日下午六時半

場所 市內長谷川町 公會堂

上演劇本 누가제일바보냐(全二幕) 最後의假面(全一幕)

入場料『青券』五十錢『紅券』(學生)三十錢

主催 世富蘭偲劇俱樂部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一枚一人 慈善演藝大會 오케-레코-드人總出 管絃樂、獨唱、劇、流行歌、朝鮮歌謠 朝鮮日報讀者優待券 日時 二十三、四兩日間 場所 長谷川町公會堂 割引料金 四十錢、二十錢

一枚二人 上映 文藝映畵 永遠의微笑 成吉斯汗의假面 朝鮮日報讀者優待券 割引料金 階上 大人五十錢 小人三十錢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十二月二十一日로十二月二十五日까지 團成社

林巨正傳 (248)

洪碧初 作 安碩柱 畫

계향의집은 한번 놀러갓든데도 나이어린 [illegible] 도는 초가로 큰집이나 집에잇는 식구는 단출하야 안에는 계향이외에 상직하는 늙은이와 심부름하는 기집아이가 잇고 박게는 부리는사람내외가 잇슬뿐인데 계향이가 집에업스면 놀러와서 떠드는 손님도업는까닭에 집안이 항상 사람업는집가티 조용하얏다 진날두눈이ㅅ날 계향이가 집에 나와서 옷갈더닙고가 뒤 넌나몰동안 감영안에서 먹고자고 집에는 하번도 나오지아니하얏다 조석밥은 집에서 드려가는데 기집아이가 감영안을 드나들엇다 커녁때가 다되어서 부리는녀편네는 부엌에서 밥을짓고 늙은이와 기집아이는 마루에서 반찬을 작만하는중에

『할머니 저녁반찬은 좀소복소복 담으시요』

『왜』

『저녁에는 이중군나리가 초벌요리하신다고 아씨하구가치작술빼가 만습되다』

『이중군나리가 사람이 재미잇는게야』

『재미잇다뿐이요 반찬을 집어서 아씨입에 너주기까지하신다오』

『그맛에 감영안에서 조석을자시는구나』

『아씨가 참말 이중군나리에 반하섯서요』

『나는 그게 걱정이다』

『무엇이 걱정이에요』

『한사내만가지고 죽자사자하면 못쓴다 내들아 조하하느』

『조하한해도 고만이지요』

『요컨가티 죽도록 매를마저도 고만이야』

『참말 요새 사람들이와서아씨안나오섯느냐고 물을때는 맘이 송구스러워요』

『몰아간 형님만가트면 죽군브윤할것업사 한손에 너코 놀리련만 그런수단이 잇서야지』

늙은이와 기집아이가 주거니밧거니 지거리다가 별안간에 나는

『불이야』

소리에 놀라서 밧갓들을내다보니 바갓채에 불이낫다

『아이구 커게 웬일이야』

늙은이와 기집아이는 발을동동 굴르고

『아이구 우리세간을 엇더케하나』

부리는녀편네는 근두박질하야 박그로 나갓다

『불이야』

소리가 넌혀나며 이웃사람들이 모혀와서 불을잡기시작하얏다 기집아이는 감영으로 뛰어가고 늙은이는 안불 비와 수업서서 안마당에서관 와다갓다하얏다 다행이 사람이 빨리 서둘어서 불이 커지지 못하고 잡히엇나 불잡은사람들이 차차 허터질때 비로소 계향이가 기집아이를 다리고 감영에서 나왓다 아즉 가지 안흔사람들을 인사하야보낸뒤에 계향이는 부리는사내에게 불난까닭을 물엇다

『불씨업는 사랑에서 엇재 불이 낫나』

『몰으겟습니다』

『몰으다니 불날때 자네는 어듸잇섯나』

『방에 누어잇다가 불이야 소리를듯구 뛰어나왓습니다』

『먼저 소리친사람은 누구야』

『울박게서 누가 소리를질럿는가봐요』

『몰라요 아마 아이들이잇섯나』

『아마 업섯지요라니 등신가튼소리 작작하게』

『사랑방 처마에 불이 활활붓는걸 보구 정신이 업섯세요』

『뭄풀아이놈들이 와서 불작난하다가 불을낸게아닌가』

『낮들은 독개비불이라구 하든데요』

『컨에업는 독개비가 갑작이 어듸서 왓서』

『귀천방에잇든 독개비가 할혐하구 나왓는가부다구 말들해요』

『뭇소리 다듯겟네』

계향이가 부리는 사내에게 불난자리를 치우라고 닐르고 안방에 들어와 안젓슬때 사령들이 박게서 안마당으로들어오며

『계향이 잘만낫네』

『자네 만나기가 참 어려웨』

하고 너털웃음들을 웃엇다

『웬일들이요』

『웬일 우리온게 웬늘이냐말이야 자네게 술먹으려오지 안헛네 자네가 우리따위를 술주겟나』

『저향이 자네 관가에 잡혀네 차 나오게 가처가서』

사럼들은 곳 신부찾은체마루우에 올나섯다

라디오

金泰洽

◇同六時二五分 朝鮮語講座(十八) 權惠奎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話(癸酉年와動靜) 康尙奎

◇同八時 (大)管絃樂 大阪交響樂團 指揮에마뉴엘멧텔

◇同八時四〇分 雜曲

一、伽倻琴倂唱 大丈夫

二、伽倻琴과大笒 가、방아타령 나、兩山道 다、노래가락 라、青春歌 마、密陽아리랑 바、사랑가 사、늴늬리야 伽倻琴 李日善

◇同九時 俗謠 大笒 金準梁

一、小春香歌 二、달거리 三、백구타령 四、운실타령 五、楊柳歌 趙牧丹 金蓮玉

今日順序

十二月二十三日(土曜) 第二放送 (波長四九二米)

◇午前一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

◇午後〇時五分 京城府廳發表 映畵이야기 李愚興 旅愁 音樂 伴奏

◇同〇時四〇分 뉴-스

◇同二時 家庭講話 兒童心理와家庭敎育(二) 丁洪敎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事項

◇同六時 童謠 一、獨唱 가을바람 二、合唱 자근별 三、同 멋쟁이엄바 四、獨唱 엿장사 五、輪唱 파랑새 六、合唱 차하호호 七、獨唱 둥근쟁반 八、同 기러기 九、合唱 욋밧 十、同 가을 京城興仁學院音樂部兒童 指揮 徐相懿 피아노伴奏 金英錫

◇同六時二五分 滿洲語講座(三二) 張志映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話(癸酉年의朝鮮運動界의回顧) 金泰洽

◇同八時 京城立唱 一、놀양 二、압산打鈴 三、뒷산打鈴 蘇完俊 韓仁學 韓賢藏 李正云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唱歌 二、唱劇調 가、春香自嘆歌 나、沈奉事물에빠지는데 河弄珠 鼓手 池龍九

◇同九時 바이올린獨奏 一、소나타C長調 第六番 하이든作曲 第一樂章알레그로 第二樂章 미누엣트 第三樂章 主題와變奏曲 二、라-꼬 헨델作曲 三、자장가 고다-르作曲 四、敍情詩曲 프-리作曲 洪蘭坡 피아노伴奏 金元福

第一放送

十二月二十三日(土曜) 第一放送(波長三三三米)

◇午前七時 (東)基礎獨語講座(四十一)終講 橋本忠夫

◇午後〇時五分 琵琶 勸進帳 和波汝水

◇同〇時四〇分 뉴-스

◇同四時 뉴-스、職業紹介事項

◇同六時 (東)兒童劇 長谷 山鹿菊音樂會員

◇同六時二〇分 (東)어린이新聞 關屋五十二

◇同六時二五分 (大)말의講座

◇同七時三〇分 (大)時事解說

◇同八時 (大)義太夫 夕霧阿波의鳴渡 淨瑠璃 豊竹昇之助 三味線 豐澤力松

◇同八時四〇分 (東)連續라듸오、드라마(第三回) 렌오폴 스토이作 復活 (昇曙夢譯及立案) AK文藝課、組

劇團太陽劇 開大公演第一週 觀覽料 階上 大人四十錢 小人三十錢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時代劇 進軍 全一幕 任曙防作

鄕土悲劇 故鄕 全二幕 朴春圃作

爆笑劇 戀愛는鬪爭으로부터 全一幕 任曙防作

幕間 스켓치、獨唱、合唱、舞踊 林生員 全玉 扁仙鶴 指承伊 申카나리야

次週―上演藝題 悲劇 헤여지는결의 全二 嘉母性劇九曲 哀劇 그는웃엇다 全一幕 絕世나 全一幕

寺洞 光一二八一 朝鮮劇場

流行歌 孤寂 不死鳥 (一五八七) 獨唱 李蘭影孃 오케-레코-드

朝報案內 高價買入 電話商品券其他電話로通知하시면即時買入하오니下命하야주시요 金永壽商會 電話本局三〇〇〇番

巡査 合格保證巡査受驗準備書 定價九十錢送料十九錢 本書로受驗하면合格되나 못되면冊價返金 東洋大學堂

讀者利用欄

採用 女子로年齡二十二歲以下 二十五歲까지 學力中等以上 月給參十圓志望者는自筆履歷書要携來 京城府貫鐵洞一六七番地 幼年畫報社

募集 十八歲以上二十歲까지의 少年軍을募集하오니入團을希望하는이는 本團으로來問하시압 高陽郡漢芝面梨泰院里 朝鮮少年軍本團

採用 女給을若干名採用하겟사오니有意하신분은來談하시압 市內貫鐵洞二六二 카페-오리엔탈

採用 寫眞에經驗이有한技師若干名採用함 釜山府瀛州町五八 釜山寫眞技師養成所 張淳見

募集 男女新聞記者를採用코저하니希望者는左記에照會事 新時社全南總支局

書籍 改造社版全集 最近十年定價의五割引新品 新義州 讀者

歷史 驛動史 系圖 ... 京城水標町 ...

書籍 啓明俱樂部編纂 ... 咸南咸興 ...

求職 ...

書籍 ...

求職 ...

求職 ... 大邱府 ...